정원에 표상된 이상

- 토머스제퍼슨의 아카데미컬 빌리지와 몬티첼로의 경우를 중심으로 -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Ideals Represented in Gardens

- Focused on Thomas Jefferson's Academical Village and Monticello -

Sung, Jong-Sa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garden has long served as a way of thinking about nature and about culture and how each influences the other (Francis and Hester, 1990). This study, viewing the garden as a representation of the ideal, tried to seek for detailed aspects of the aforementioned ideal with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omas Jefferson's gardens. Hidden behind his best known position as a politician was his other career: designer and creator of several gardens. Monticello, Academical Village, and Poplar Forest represented not only his ideals of national values like freedom, democracy and agrarian society, but also a yearning for the rural area and ideals for higher education realization. His personal desire and ideal are represented inside the spatial order, together with his ideals as a politician and the pioneer of new country. By representing the symbolic meaning metaphorically and restructuring it through a spatial scheme, Jefferson's ideal was admired and shared with visitors. In this way, Jefferson's gardens were practical stages to reveal his ideals.

Key Words: Representation of Ideal, Thomas Jefferson's Garden, Academical Village, Monticello, Poplar Forest

국문초록

대체로 정원은 인간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둘 간의 영향관계로 설명되어 왔다(Francis and Hester, 1990). 이 글은 정원을 인간의 꿈과 이상이 구축된 표상으로 간주하고 그 구체적인 면모를 토머스 제퍼슨의 정원을 사례로 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 것이다.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토머스 제퍼슨은 직접 여러 정원을 설계하여 조성한 후 몸소 가꾼 정원가이기도 하였다. 그가 직접 설계하고 완성시킨 몬티첼로, 아카데미컬 빌리지, 포플러 포레스트 등에는 그의 국가적 이념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 중농주의 등의 이념적 가치와 함께, 전원 생활에 대한 지향 그리고 고등 교육에 대한 이상이 숨김없이 표상되어 있다. 정치가이자 신생국의 선각자로서의 이상과 함께 그의 개인적인 꿈과 신념이

Corresponding author: Jong-Sang Su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1423, E-mail: jssung@snu.ac.kr

공간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다. 추구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그것을 공간적 도식으로 재현함으로써 제퍼슨의 이상은 자신은 물론 그 곳을 찾는 이들에게 재음미되고 공유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제퍼슨에게 있어서 정원은 이념과 이상을 공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무대였다고 할 수가 있다.

주제어: 이상 표상, 토머스 제퍼슨 정원, 아카데미컬 빌리지, 몬티첼로, 포플라 포레스트

I. 들어가며

정원은 다양한 존재 사유와 의미를 지닌다. 야생 자연에 대항하여 구축한 안전한 안식처에서부터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취향에 이르기까지 정원의 의미나 효용은 다양하다. 그런 만큼 정원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어온 것¹⁾도 사실이다.

정원은 자연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사회의 신념을 토대로 하여 이상화한 곳(Francis and Hester, 1990)이다. 자연과 문화, 그리고 그들간의 상호 영향에 대한 사고방식의 산물로서, '자연의 상징(emblem of nature)'으로 구축한 곳이 곧 정원(Hunt, 1998)인 것이다. 풍경을 자연 안에 있는 자연보다 더한 그 무엇, 이른바 자연의 상(icon)을 지각기관에 각인시키고 기호화한 것(Michel, 2000)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원 역시 자연을 상징적 표상으로 재현한 곳인 것이다. 정원 개념 범주의 변화를 따져보면 한 국가의 문화 발전의 역사를 간파해 낼 수 있다는 지적(Andrew, 1999)처럼 정원은 국가적 문화 지표이기도 하다. 결국 정원은 자연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실체인 셈이다.

정원이 낙원으로 표상²⁾이 되었다는 사실은 인간 정주환경이 그 만큼 열악해졌음을 반증한다.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이래 인간은 힘들고 팍팍하기만 현실의 상대향으로서 다시는 갈 수 없는 낙원을 꿈꾸어 왔다. 그렇게 정원은 인간으로서의 유한성과 한계를 넘어 선 꿈꾸기의 도약대이자 무대로서, 상상력과 영감의 현장으로 자리잡아 왔다.

조경가로서 혹은 정원가로서의 제퍼슨에 대한 연구로는 Nichols and Griswold(2003)나 Hatch의 저서(1992)가 눈에 띄나, 주로 그가 직간접 간여한 정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또 그의 작정 의도나 이론에 관해서는 Adams(1983), Waddell(1987), McLaughlin(1988), Stein(1993), Brawne(1994), Phaidon(1994), Cheuked(2003) 등에서 단편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그 이면으로서 그의 자연관 내지 조경관에 대해서는 Miller(1988)와 성종상(2010)의 연구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정원을 인간의 꿈과 이상이 구축된 표상으로 간주하고, 그 구체적인 면모를 토머스 제퍼슨의 정원을 사례로 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토머스 제퍼슨의 정원들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는 연유는 순전히 정원과 이상 사이

의 연관성 탓이다. 즉, '실천적 이상주의자(practical idealist)'(Cheuked, 2002: xviii)'인 제퍼슨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현실 정치에서만이 아닌, 자신 스스로 만들어 즐긴 정원 속에 펼쳐 보였던 면모를 살펴보는 것이다.

II. 이상의 공간적 표상으로서 정원

이상이란 인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목표를 말한다. '현실'에 대한 상대향으로 탄생된 것이기는 하나, 인간이 부단히 노력하여 성취하거나 가까이 이르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상은 공상이나 몽상과는 다르다. 그것이 절대적 완전체인 실현가능한 목표이든 간에 이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적 존재 가치를 획득하게 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나아가 이상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각자가 처한 현실 너머 무언가를 지향으로 갖게 함으로써 문화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와 유사하게 정원에 있어서 이상은 그 태동 배경이 되기도 하고 조성 개념과 설계안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동서양 거의 모든 정원의 전형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에덴이나 파라다이스, 그리고 무릉도원은 공간적으로 표상된 이상 정원의 대명사라 할 만하다. 세속적 욕망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서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이상향으로 간주됨으로써 이들은 정원의 영원한 전범으로 간주되어 왔다. 달리 말하자면 이들 이상향 - 보다 정확하게는 그와 같은 완전한 상태 내지 경지로서의 이상 - 을 표상함으로써 정원은 그 존재 근거를 인정받아 온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의 관념을 땅 위에 재현시킴으로써 정원은 상상과 현실의 간극을 메워주는 이상 실현의 대체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림이나 문학이 추상적 재현에 머무르는데 반해 구체적인 실체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은 실천성을 담보해 준다. 추상적 관념을 시지각적 모티브나 연상을 통해 물리적 공간 속에 구체적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면서, 나아가 자신이 그 속에서 땅을 일구고 나무를 심는 등 신체를 통한 행위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을 표상한 공간으로서 정원의 면모는 그 역사만큼이나 유래도 길고, 사례도 풍부하다. 베르사이유 정원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17세기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대명사로서 그것은 광대한 지면 위에 축과 대칭으로 펼쳐진 공간의 무한한 평면성이 한껏 강조된 작품이다.

그것은 태양과도 비교되곤 했던 절대왕 루이 14세의 권력과 그 지향을 표상하는 공간적 도식으로서 때로는 자연의 위력조차도 자신의 권력 아래 굴복시키고자 했던 이상의 산물이었다. 북경에 있는 원명원에도 지상의 모든 아름다운 정원을 자신의 정원 속에 집약하여 지상낙원을 과시하려한 청나라 건륭제의 꿈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이상의 표상은 무릇 정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구현된 것은 아니라 도시 속으로 확장된 정원, 곧 공원에도 그대로 추구되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에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 옴스테드의 꿈이 담겨 있다. 넓게 개방된 초지는 누구에게나 열린 평등과 자유를 표상하며, 곧게 뻗은 보행로(The Mall)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당당함을 표방하고 있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스타인(Clarence S. Stein)이나 라이트(Henry Wright) 등이 주도한 전원도시운동³⁾은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적 이상이 경관 혹은 정원에 표상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민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공공의 정원(garden court) 혹은 공용의 오픈스페이스를 단지의 중심으로 설정함으로써 주민들간의 사회적 접촉을 증대시켜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 정원 또는 오픈스페이스를 공동체의 가치를 드러내고 형성시키는 매개로 활용한 당시 전략은 이후의 근대 도시계획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Walker et al., 1994)으로 평가된다. 결국 시대적 산물로서 정원이나 공원은 이상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간주되어온 것이다. 다만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느냐 혹은 공동체 전체로 확장된 것이냐 만이 달랐을 뿐인 것이다.

III. 토머스 제퍼슨 이해-정원생활과 경관관

1. 제퍼슨의 정원생활

제퍼슨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병규, 2005)이다. 신대륙 미국이 하나의 국가로 독립하여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정치가, 교육자, 그리고 철학자로서 그가 남긴 족적은 지대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언어학, 자연과학, 농학, 원예, 측량, 디자인,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겨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특히 1776년 그가 기초한 독립선언문은 천부 인권에 입각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창함으로써 미국 건국의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평생 진정으로 하고 싶어 했던 일은 정원 가꾸기였다는 사실은 정작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정원일에 미친 사람’(Hatch, 1992)이라고 할 만큼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데 매진하였다고 전한다. 정원 일을 ‘환상으로 땅을 장식하는 일’로서 ‘제 7의 예술’⁴⁾이라

고 할 만큼 그는 정원 가꾸기를 중시하고 즐겼다. 그가 만든 정원으로는 자신의 집 몬티첼로와 은거지 포플러 포레스트를 위시하여 버지니아 대학 내 아카데미컬 빌리지의 여러 정원들을 들 수가 있다. 그의 친구이자 미국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의 사저 몬펠리에(Montpellier)도 그의 조언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 남아있는 영국식 정원로서는 가장 먼저 조성되었고, 가장 잘 보존된 곳(Nichols and Griswold, 2003)으로 평가되는 몬티첼로는 그가 25세 때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개축(Stein, 1993)하였을 만큼 중시하였던 곳이다. 저택 앞의 정원을 비롯하여 길이만 300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텃밭과 포도밭, 양묘장, 각종 과수원 등 다양한 정원들이 몬티첼로를 구성하는 주요 공간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도 그 같은 그의 관심과 애호의 결과인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정원은 심미적 취향과 실용적 필요의 충족은 물론, 자연 탐구와 실험의 장이기도 하면서 사회적 교류의 장⁵⁾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념적 이상을 표상하는 대상이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다양한 기능과 의의를 지닌 다층적 복합 의미/ 기능의 장이었던 것이다. 당시 신생국 미국

a: 제퍼슨의 스케치

b: 친구이자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제임스 매디슨의 사저 몬펠리에에 있는 Temple. 제퍼슨은 매디슨의 정원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 제퍼슨의 정원 건축물 설계

자료: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성종상, 2009

을 이끄는 정치가로 활동하면서도 공적 생활을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를 꿈꾼 그가 끊임없이 되돌아가고자 하였던 곳이 몬티첼로였던 것⁶⁾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자신의 고향인 버지니아 앨버말 지역은 자신의 경제적 기반인 농장이 있는데다가 자신이 오랜 기간 애써 짓고 있던 집 몬티첼로가 위치한 곳으로 그에게는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적 위안처였던 셈이었다.

2. 경관의 이념화

문명화된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신생국 미국을 하루 속히 문명국으로 이끌어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당시 토머스 제퍼슨을 비롯한 대다수 지도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소명의식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정치 경제적 부국정책과 함께 문화적 소양까지도 더불어 진작시킴으로써 신생국 미국을 영국 등 당시의 열강들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시각에서의 자각이기도 하였다. 자연에 대한 그의 시각이 종교나 과학적 관점을 넘어서 정치적 이념에까지 걸쳐 있는 것⁷⁾은 그러한 자각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직접 설계하여 시공한 건물과 정원에서 어렵지 않게 그의 이념적 사고의 단면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연유에서이다.

건축의 수필⁸⁾로 불리는 그의 집 몬티첼로는 작은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본관 주택 좌우 부속동 건물을 지하화한 상부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단순한 경관 감상을 넘어서 자못 이념적이기까지 하다. 공용 담소장으로 사용되었던 북서측 테라스에서는 산 아래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샬로츠빌(Charlottesville) 시 뒤측으로 신축 중이던 버지니아 대학과 그 너머로 블루릿지(Blue Ridge) 산맥 연봉까지도 조망 가능하다. 그의 손녀는 “그

북쪽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그 자체로 숭고(sublime)였다. 그 곳에서 제퍼슨은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자유, 미덕, 지혜, 배움 등을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곤 했다.”(Cheuked, 2002)라고 회상한 적이 있다. 자신이 만든 정원의 한 부분 테라스를, 신생국 미국에 필요한 도덕적 가치와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곤 했던 이념적 소통의 장소로 삼았던 것이다. 숭고라는 용어를 동원할 만큼 장엄하고 광대한 주변으로의 조망을 제공해 줌으로써 테라스는 이념 소통의 장소로서 적격이었음직하다. 말하자면 경관은 그의 이념과 신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유력한 매개물이었던 셈이다.

남서측 테라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면모가 발견된다. 동남으로 무한히 펼쳐진 평야가 아득하게 전개되는 그 곳에서 이른 아침마다 멀리 눈 아래 지평선에서부터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하곤 했을 것이다. 특히 몬티첼로에 속한 그의 농장 부지가 북측에서 동남측으로 걸쳐 넓게 펼쳐져 있었으므로 그 곳에서는 이른바 3개의 ‘사분원농장(quarter farms)’⁹⁾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동남측 방향으로로는 평탄한 경작지가 끝이 안 보이게 펼쳐져 있어 그가 종종 바다와 비교하였던 파노라믹한 장관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¹⁰⁾. 직선거리로도 2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대서양까지는 웬만한 산 하나 없을 만큼 대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것이다. 남서측 테라스 아래 채원 끝에는 그가 직접 설계하여 마련한 작은 정원건축물(pavilion)이 자리잡고 있다. 그 곳에서 그는 일출 때부터 늦은 오후까지 전망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거나 책을 읽기도 하고, 일망무제의 파노라믹한 경관을 바라보면서 신생국 미국의 비전과 희망을 꿈꾸었음직하다.

경관에 대한 그의 이념적 투사는 노년에 그가 전력을 다하여 완성시킨 버지니아 대학 교정의 아카데미컬 빌리지에서도 여실히 잘 드러나 있다. 대학의 여러 기능과 공간을 대규모 단일 건물에 집어넣는 방식 대신에 그가 택한 것은 작고 분리된 여러 건물군을 일련의 공간 질서 속에 연결시켜 배치시키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커다란 건물이 “그 자체의 건축적 과도함(over-building)”으로 “항상 추하고, 불편하며,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전염에도 취약”하다¹¹⁾는 그의 판단 때문이었다. 신생국 미국에 꼭 필요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젊은 이들이 틀어박혀 있을 방을 담아낼 건물(여러 기능이 한 데 혼재됨으로써) 붐비는 대형 건물일 경우(그것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상) 건강과 학습, 매너나 도덕, 그리고 질서에 있어서 모두 나쁘다”¹²⁾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아카데미컬 빌리지 설계안은 중앙축 선상의 로툰다와 그것을 중심으로 배열된 4열의 건물군, 그리고 중앙 잔디밭과 건물 사이의 정원으로 구성된다. 가장 크고 웅장한 외형을 지닌 로툰다가 강력한 건축적 초점을 이룬다면, 건물들 사이에 비워진 중앙부

그림 2. 몬티첼로 뒷밭 끝부분에 위치한 작은 정원건축물

토머스 제퍼슨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것으로, 눈앞에 펼쳐진 일망무제의 일대 장관을 감상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신생국 미국의 미래를 꿈꾸기도 하였던 곳이다. 자료: 성종상, 2009

a: 아카데미컬 빌리지 조감 사진. 중앙 상단 로툰다와 잔디밭을 중심으로 파빌리온과 정원 등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된 구도이다.

b: 중앙 잔디밭에서 본 로툰다

c: 현관에서 반대 방향으로 본 전경

그림 3. 버지니아 대학의 아카데미컬 빌리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이상적 모델로 제퍼슨이 직접 구상하여 설계한 곳으로 이후 수많은 대학의 모델이 되어 왔다. 자료: 성종상, 2009

잔디밭은 아카데미의 활동이 집중되는 구심적 장소가 된다. 일정 간격으로 배치된 2층 건물 파빌리온은 로툰다의 상징과 권위를 수평적으로 확장시키듯 강조된 파사드와 지붕으로 장식되어 있다. 한 쪽에 5동씩 모두 10동이 배치된 pavilion은 교수 아파트(2층)와 강의실(1층)이다. 1층으로 된 날개의 다른 부분들이 모두 학생들의 기숙사임을 감안하면 교수와 학생이 같은 건물 내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아카데미컬 빌리지는 경관과 건물을 하나의 통일된 건축적 구성 안에 통합시켜야 한다¹³⁾는 그의 공간설계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이 그의 최고 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에 대한 이상적 모델과 합쳐진 것이라 할 수가 있다.

IV. 토머스 제퍼슨의 정원에 표상된 이상

1. 국가적 이념의 추구

정원이나 경관을 바라보는 제퍼슨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실용(the useful)과 미(the beautiful)라는 두 가지 가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농부로서 실용과학적 태도를 견지한 그의 가치관에 연유한다면, 후자는 그가 일찍이 William Hogarth

그림 4. 몬티첼로 입면과 평면(2nd version).

자료: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1697~1764), Lord Kames(1696~1782), 그리고 Edmund Burke(1729~1797) 등의 미적 견해에 공감한 것¹⁴⁾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그가 사행하는 곡선을 선호한 것도 Hogarth의 미 철학에 연유한 것(Nichols *et al.*, 2003: 77)으로 알려져 있다. 시각적 미를 중시한 Burke나 Kames의 견해를 쫓아서 제퍼슨은 사물의 보는 시각의 위치나 그것들의 시각적 배열의 중요성에 유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가 남긴 건축적 성과들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도덕이나 이상 등의 이념적 가치가 한결같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 위에 말한 두 가지 가치가 현실적인 필요나 개인적인 심미와 직결된 것인데 반해, 이들은 그 자신 또는 당시 미국의 국가적 이념과도 닿아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이는 자연에 대한 그의 몇 시각¹⁵⁾ 중에서 국가적 정체성의 의미소로 간주한 정치철학적 관점과 관련된다. 즉, 자연은 신생 미국공화국의 사회구성과 국민정신에 중요한 변수로서, 다양한 이질적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 내면서 국가적 정체성을 구축해줄 유력한 자원(성종상, 2010; 신문수, 2010; Miller, 1988))으로 간주된 것이다. 신의 섭리에 대한 증거로서 자연을 인간의 도덕과 문명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인간 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문화적 산물로서 정원에 관한 그의 이념적 시각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정원에 표상된 이상은 신생국 미국의 기본 이념이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그가 지녔던 농업 중심의 국가관 등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1) 민주주의

제퍼슨이 지녔던 국가적 이념으로서 민주주의는 그가 직접 설계한 건물들에 잘 표상되어 있다. 아카데미컬 빌리지의 로튼다, 몬티첼로, 포플러 퍼레스트, 버지니아 주 의사당 등 그가 설계한 거의 모든 건물들은 간결함과 절제, 비례와 균형감 추구라는 팔라디오 양식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대 로마의 신전 건물이 지닌 고전적 형식미를 통해 공화정이 지녔던 강력한 정치적 의미를 표상하고자 한 것이다. 일례로 미국 공공건물의 한 전형이 되기도 한 버지니아 의사당은 고대 사원의 고전주의적 규범을 버지니아 주 새 의사당에 채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종교적 건물 형식을 현대적인 건물에 적용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도 대단히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민주주의 사원(temple of democracy)' 건축을 통해 신생국에 거는 그의 희망을 숨김없이 드러내고자 하였던(Loth, 2008) 셈이다. 프랑스 님프(Nimes)에 있는 팔라디오의 Maison Carree를 본 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버지니아주 의사당 건물은 이후 미국 내 신고전주의의 부흥을 촉발시켰고,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팔라디오 양식을 미국 공공건축물의 한 전형으로 정착시킨(Loth, 2008) 출발점이 되었다. 고전주의의 순수 조형미에 입각한 완전성으로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합리적 가치와 이상을 표방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 5. 몬티첼로의 팔라디오식 본관과 자연풍경식 정원
본관과 양측 날개동 앞으로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그 주변을 곡선형 산책로가 감싼 형태이다. 자료: 성종상, 2009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형식미를 획득한 건물은 주변보다 높은 언덕 위에 놓여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널리 퍼뜨리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사원'이 된 것이다.

2) 자유의 표상

자유는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제퍼슨은 자유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믿었다. '세상의 꽃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신문수, 2010)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자유에 힘입은 바로 간주한 것이다. 제퍼슨이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하면서 필수과목이나 학년 개념을 없애고 과목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것도 이 같은 자유에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종 제약과 억압의 원천으로 간주한 대학 행정기구나 총장을 두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교수와 학생이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¹⁶⁾도 그런 까닭에서였다. 자유에 대한 그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공간에 표출된 사례로는 아카데미컬 빌리지나 몬티첼로 본관 앞의 넓은 잔디밭을 들 수가 있다. 좌우대칭과 비례감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정돈된 아카데미컬 빌리지에서 중앙의 잔디밭은 엄정한 질서에 개방감을 제공하면서 고전적 형식미를 완결지어 주는 요소이다. 교수나 학생 모두에게 학문의 배움에서 오는 구속과 긴장감을 털어버리고 서로 자유롭게 만나고 소통하는 장인 것이다. 그러면서 일체의 건물 없이 먼 산까지 열린¹⁷⁾ 잔디밭은 그 자체로 무한한 자유의 상징이었다. 물리적 공간에서 자유를 표상하려는 그의 의도는 몬티첼로 정원에도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 정형적인 건물과는 달리 몬티첼로 정원은 뜻밖에도 풍경식 정원 양식을 취하고 있다. 즉, 건물이 팔라디오식의 전형적인 고전적 형식미학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정원은 곡선 원로 위주의 자연풍경식 양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 서측의 넓은 잔디밭을 부드럽게 굽이지며 순환하는 곡선형 산책로는 엄정한 대칭으로 배치된

건물과 자못 대비되기까지 하다. 팔라디오식의 건물에 굳이 영국식의 자연스런 정원을 택한 데에서 우리는 그가 영국 풍경식 정원 미학에 얼마나 매료되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 당시의 전형적인 식민지 정원들이 과도한 울타리로 공간을 구획하고 그 안에 크고 작은 소정원을 연출하는 정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자유로운 곡선과 비정형적 식재 방식, 그리고 자생종을 중시한 그의 정원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평소 들고 다니며 참조했다고 하는 영국의 정원 관련 서적, 특히 Thomas Whaley의 책 "Observations of Modern Gardening"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봐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자연스러운 양식이 지닌 자유와의 상징적 연관에 그가 의미를 부여했으리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3) 중농주의(Agrarian Ideal)

온화한 기후의 버지니아에서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난 제퍼슨은 어릴 적부터 흙과 농업을 접하면서 땅을 가꾸는 일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평생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임용순, 1995)라고 예찬했다. 대통령직 임무를 마치고 난 뒤 자신의 집 몬티첼로로 돌아 온 직후에 '젊은 정원사'로서의 새로운 임무를 즐겨 수행하였던 것도 그가 진심으로 땅을 갈고 작물을 가꾸는 일을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¹⁸⁾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퍼슨의 가장 훌륭한 치적 중 하나로 간주되는 서부 개척(Hayes, 2008)도 농업을 통한 이상(agrarian ideal)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로 볼 수도 있다. 거친 황야를 인간의 손으로 개간함으로써 신이 준 자원으로서 자연의 가치를 증대시켜 문명화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보았음직한 것이다. 그 이상은 공간 척도상의 차이는 있으나, 정원에도 그대로 투사되었다. 평생 그가 정원을 가꾸며 살고자 했던 것도 결국은 정원이 담고 있는 농업적 의미의 실천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농업의 일환으로서 정원은 말하자면 농업이 보다 문화화된 것이라 할 만한 것이다. 그의 농업적 이상이 가장 잘 표상된 곳은 아카데미컬 빌리지와 몬티첼로이다. 아카데미컬 빌리지의 중심적 공간인 중앙 잔디밭(the Lawn)은 구릉을 따라 흐르면서 인간의 개발이 미치지 않은 자연 속으로까지 연장되는 듯한 구도로 만들어져 있다. 로툰다(Rotunda) 전면에서부터 좌우의 날개동 사이 잔디밭 너머 자연산지로까지 무한히 열린 이 조망 구도는 제퍼슨의 농업적 이상(agrarian ideal)을 표상한다. 인간 이성으로 구축된 문명의 상징 로툰다, 곧 도서관 앞에서 야생을 향한 시선이 무한히 열리는 구도는 그 곳을 농업의 의미를 각성시키는 현장으로 인식시키기에 유리한 설정이다. 뿐만 아니라 좌우 파빌리온 뒤쪽에 특별히 조성된 정원은 농업국가 이상을 실천하는 현장으로서 식물과 원예를 배우는 실험실이고, 배움과 실천 일치를 위한 실습장이었다.

그림 6. 몬티첼로 텃밭

길이 300여 미터인 이곳에서 제퍼슨은 다양한 채소와 농작물을 시험적으로 재배하였다. 자료: 성종상, 2009

몬티첼로에도 그의 농업 이상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본관 앞 풍경식 정원 아래에 조성된, 길이만 300미터가 넘는 텃밭은 그가 다양한 채소를 실험하고 재배하던 곳이다. 가족들의 식재료를 공급하던 그 곳에서 제퍼슨은 70여종의 채소류와 46종류의 콩류, 그리고 25종의 영국 배를 시험재배하고 길렀다(Cheuked, 2002: 137)고 전한다. 또한 그는 몬티첼로 북측과 남측 사면에 과수원을 조성하여 그가 가장 애호한 복숭아를 비롯한 170여 품종의 과수와 특용수종을 시험 재배하였다. 프랑스로부터 수입한 포도 외에도 지중해의 올리브와 석류, 무화과, 아몬드 등을 완만한 경사지에 조성된 과수원에 재배하였다. 특히 포도에 관해서는 미국 최초의 포도 재배가로서, 오늘날 버지니아주를 미국 내 두 번째 포도주 생산지로 만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2. 전원 이상 구현의 현장

제퍼슨은 신대륙의 대자연이 지닌 건강한 야생성을 신생국 미국의 새로운 정체성과 관련시켜 바라보았다. 그는 미 대륙의 광활한 야생의 천연 자연을 구대륙 유럽의 문명과 대비되면서 신생 공화국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구축해 줄 유력한 자원(성종상, 2010)으로 간주하였다. 말하자면 자연을 새로운 삶을 열어줄 가능 자원으로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원은 자연에 대한 그의 관심과 농부로서의 삶을 펼쳐 나가기에 적절한 곳이라 할 수가 있다. 정치가로서는 내성적이면서 혼자 있기를 즐긴 그는 도시보다는 전원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혼탁한 도시나 야생의 자연 양측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전원을 지향한 사실은 그가 직접 부지를 택한 몬티첼로나 포플러 포레스트 등의 거처로서는 물론,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아카데미컬 빌리지의 입지를 정한 위치를 보면 잘 읽을 수가 있다. 그가 새로운 대학 입지로 잡은 지점은 한때 제임스 먼로 소유지였던 땅

으로 샬로츠빌에서 서쪽으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의 낮은 구릉과 숲으로 된 농장지대였다. 시에서 떨어진 전원지역을 선택한 데에는 도시를 좋아하지 않았던 그의 취향과 함께 자연 개간을 문명화의 일환으로 간주한 그의 사고가 작용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모두 80만²이 넘는 부지를 확보한 후 제퍼슨은 그 곳에다 천문관측소와 식물학과를 위한 정원, 그리고 농학과를 위한 실험농장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학교가 지어지는 동안 그는 자신의 집 몬티첼로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그 곳을 감독 차 자주 방문하곤 했다.

이와 유사한 그의 생각의 한 단면을 우리는 몬티첼로 입지에서 읽어낼 수가 있다. 자신의 주거처를 도시에서 벗어난 산봉우리에도 마련한 까닭을 몬티첼로에서 오랜 시간동안 정원을 직접 가꾸면서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Peter Hatch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 하나는 자신이 살던 지역 Piedmont Virginia 지방의 경관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요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생한 자연과의 접촉²⁰⁾이 가능한 입지 때문이라는 것이다²¹⁾.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까닭으로서 우리는 제퍼슨의 상상을 자극했던 두 가지 원천, 즉 고대 로마시대 이태리 전원예에 대한 플리니(Pliny)의 고전적 풍경과 18세기 말 낭만주의적 취향(Adams, 1983)을 읽어낼 수가 있다. 도시를 벗어나 있으면서 자연과 가까운 삶을 영위하기에는 전원만한 곳이 달리 없었던 것이다.

3. 고등 교육의 이상적 전당으로서 아카데미컬 빌리지 (the Academical Village)

1) 대학의 이상적 공간 모델

1999년 미국 조경가협회(ASLA,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는 아카데미컬 빌리지를 협회창립 백주년 기념수상작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작품 중 하나로 선언하였다²²⁾. 특별히 수상의 주요 근거로 아카데미컬 빌리지에 구현된, 현대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의미'와 '건물과 조경 간의 완벽한 비례에 의한 균형'을 들어 높이 평가하였다. 제퍼슨이 주창한 의미는 지식의 전당으로서 대학에 대한 그의 신념과 그것의 공간적 표상으로써 대학시설의 공간적 배치구도에 충실히 반영되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지식의 확산을 강조하였던(Phaidon, 1994) 그에게 대학은 유력한 수단이고 실천 현장이었다. 평생 교육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은 그는 배움은 서로 나누는 과정이므로 교수와 학생간의 소통이야말로 대학의 가장 핵심 요건이라고 간주하였다. 아카데미컬 빌리지에 교수가 활동하는 공간(pavilion)과 학생들의 거처가 나란히 배치된 것은 바로 그러한 제퍼슨의 생각이 공간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²³⁾. 대학의 상징적 핵심 심장부에 해당되는 로툰다, 곧 도서관은 부지 북측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그 바로 앞

그림 7. 아카데미컬 빌리지 배치도

로툰다를 중심으로 좌우 날개동과 정원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구도는 이후 미국 내 여러 대학으로 파급되었다. 당시 대학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배치한 것과는 달리 제퍼슨은 그 자리에 Rotunda(도서관)를 배치하였다.

에 좌우의 날개동 사이 중앙에 길게 놓인 잔디밭은 남측으로 가면서 점점 낮아지면서 먼 산으로 시선이 무한히 확장된다. 대학의 상징으로서 지식의 저장고 도서관이 좌우 날개로 아카데미를 거느리는 형국은 지식을 전파하는 대학의 이상적 공간 전형이었다. 로툰다가 건축물로서 중심이라면, 중앙 잔디밭은 비워있는 공간으로서 아카데미컬 빌리지의 구심을 이룬다. 중앙 잔디밭에 접해 있는 건물들의 크기는 중앙부 끝의 도서관에 가까워질수록 크기가 달라지고 건물의 위치 역시 도서관으로 다가갈수록 약 1m씩 높아진다. 가장 높은 위치에 중앙 도서관을 배치한 이러한 구도는 미래로 향해 끊임없이 올라가면 정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각 건물들은 그 자체가 기호나 외관 등에서 하나의 좋은 건축모델이 되어 건축 강의의 한 교본이 될 수 있도록 고대 그리스 로마의 건축양식에서 각기 다르게 구성되었고²⁴⁾, 외부공간 역시 그대로 자연과학을 가르치고 식탁에 올릴 신선한 야채를 직접 키우는 정원으로 계획한 것이다.

2) 교육의 전당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정원

날개동 후면부의 정원은 뱀 모양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엄정하게 짜인 공간에 여유로 주어진 여백처럼 전체 아카데미컬 빌리지에 생동감과 자유로운 개방감을 제공한다. 건물이 건축 공부의 대상이기를 바란 것 이상으로 정원은 학생들에게 땅을 경작하고 식물을 키우는 실습장이면서 동시에 교수와 학생

그림 8. 아카데미컬 빌리지 날개동 후면의 정원

각 파빌리온별로 구획된 정원들은 다양한 평면과 면모를 갖는다. 현재도 교수나 학생들의 휴식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를 담아내는 중요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료: 성종상, 2009

들이 학문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자연 속에서 사색과 성찰할 수 있도록 한 곳이다. 정원이 아카데미 공간에 주요 구성요소가 된 데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에까지 거슬러간 제퍼슨의 생각이 깔려 있다. 즉, 그리스의 플라톤이 정원적 환경을 갖춘 아테네 근처 지혜의 여신(Athena)에게 바쳐진 올리브 숲(groves

of Academus)에서 교육을 시작한 것을 자신의 대학교육의 장에 선례로 삼은 것(Brown, 1992)이다.

아카데미컬 빌리지에서 정원과 텃밭은 근처에 계획되었던 식물원과 함께 제퍼슨이 주창한 농업 중심의 생활방식을 강조하고 과학적 농업 기술을 가르칠 의도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의 생각은 식물원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가 사망함으로써 구현되지 못하였다. 농업대학과 실험농장이 탄생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1870년대 이후에야 일이었다. 그러나 교육과 거주, 강의와 실천을 통합시킨 배움의 전당으로서 아카데미컬 빌리지는 이후 미국은 물론 각국의 대학 캠퍼스 계획 모델이 되었고²⁵⁾, 중앙 잔디밭과 후면 정원은 현재에도 여전히 실천과 성찰을 위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소결

하나의 생각이 현실세계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도식적 사고를 거쳐 공간적 구도화(spatial schema)의 과정²⁶⁾을 거치게 된다. 추상적 가치인 이상은 개념화와 공간적 도식을 거쳐 장소에 표현됨으로써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향유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제퍼슨이 추구한 이상과 그것의 구체적인 표상으로서 정원간의 관련성은 표 1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V. 마무리

정원은 인간의 꿈과 욕망이 담긴 곳이다. 풍경화를 알레고리와 은유로 표현된 신념의 표상이라고 하듯이 정원도 역시 그러하다. 시대나 작정자에 따라 정원의 양식과 표현이 다른 것은 그런 연유에서이다. 아울러 우리가 정원의 의미나 그 표현에서 시대적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정원이 인간의 이성애 맞추어 개조된 풍경(Warnke, 1997)인 까닭이다.

몬티첼로나 아카데미컬 빌리지, 그리고 포플러 포레스트 등

표 1. 제퍼슨의 이상과 공간적 표상과의 상관성

이상		공간적 도식	표상 방식과 양상	구체적 현장
국가적 이념	민주주의	고대로마 신전양식 차용 높은 곳에 입지	팔라디오 양식 산 정상부에 건물 배치	아카데미컬 빌리지 로툰다, 몬티첼로, 포플러포레스트, 버지니아주 의사당
	자유	넓은 개방공간 자유로운 곡선	넓고 평탄한 잔디밭 자연스러운 원로와 식재	아카데미컬 빌리지 잔디밭, 몬티첼로 잔디밭, 몬티첼로 원로와 꽃밭
	중농주의	실용적 정원, 채원	채소, 원예 등의 시험재배 학생 실험실습장으로서 정원	아카데미컬 빌리지 정원, 몬티첼로 텃밭
전원이상		전원예의 입지	집, 학교를 전원예에 입지	아카데미컬 빌리지, 몬티첼로, 포플러포레스트의 입지 위치
고등교육의 실현		고전주의적 형식미-축과 대칭, 균제 건물군에 의한 구성	로툰다 중심의 좌우대칭 배치 교수-학생, 강의-실습 연계 분절된 건물군과 정원 연계	아카데미컬 빌리지

에는 정치가로서의 이상과, 교육과 철학을 아우르는 선각자로서의 이상, 그리고 감성과 심미로 삶을 영위하고자 했던 한 인간으로서 제퍼슨의 이상이 표상된 풍경들이 드러나 있다. 그 이상은 자유나 민주주의, 그리고 중농주의 등의 국가적 이념에 닿은 것이기도 하면서 자연과 전원으로 향한 그의 가치관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였다. 그와 아울러 계몽가적 선각자로서 대학교육에 대한 그의 이상은 아카데미컬 빌리지라고 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구현되어, 이후 여러 대학의 이상적 공간 모델로 제시되었다. 그가 만든 정원에는 이 같은 그의 이상이 잘 표상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그에게서 정원은 자신이 떨치고 싶었던 이상과 꿈을 형상화하고자 확인하는 현장이기도 했던 셈이다. 정원에 구현된 상징적 이념은 그것을 보고 즐기거나 거닐으로써 정신적으로 교감되기도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직접 만들고 가꾸는 행위를 통해 몸으로 체득된다. 그런 점에서 정원은 그에게 있어서 일종의 축소된 이념의 실천무대였던 셈이다. 때로는 은근히, 때로는 공공연히 드러낸 채 정원에 표상된 그의 이상은 동시대에 그 곳에서 교류한 이들에게는 물론 오늘날 찾아오는 방문자들에게까지도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정원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추상적 가치에 속하는 이상과 그것의 물리적 구현으로서의 표상 문제를 토머스 제퍼슨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고찰해 본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 개조의 산물로서 정원이 단순한 정신적 휴양이나 미적 완상 혹은 경제적 효용(생산)만이 아닌, 가치와 신념을 담는 형이상학적 의미의 장임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적이거나 공공 차원의 이상 위주로 다루었을 뿐, 정원 조성의 주요 동인으로서 보다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속하는 욕망과 취향이 정원에 표출된 양상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넘기고자 한다.

- 주 1. '과연 정원이 의미를 담아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정원을 통해 발언할 수 있는가?'라는 스펀의 표현을 빌린 질문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스펀은 정원을 의미를 생성하고 표현하는 매개로서 인간이 만든 대표적인 경관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Spim, Ann W. *The Language of Landscape*, Yale University Press(1998). 이 외에도 정원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Charles Moore(1988), Mark Francis and Randolph(1990), John Dixon Hunt(1998), David E. Cooper(2006), Pogue Harrison(2008) 등등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가 *Landscape Journal*지에서 전개된 적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Gillette, Jane. 2005. Can gardens mean?, *Landscape Journal* 24: 1-05; Herrington, Susan. 2007. Garden can mean, *Landscape Journal* 26: 2-07.
- 주 2. 지리학자 투안은 정원을 최악의 도시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이면서 위협하고 사악한 야생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낙원적 가치를 획득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Tuan, Yi-Fu (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Visions, and Values*, Prentice-Hall Inc. pp. 103-108; 성종상(2010), "초록지붕의 꿈-옥상정원의 시학", 『옥상정원의 재발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옥상정원개원 기념심포지움집. p. 15.

- 주 3. 이데아(idea), 즉 생각이 공간속에 실제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개념화와 공간적 도식을 거치게 된다. 도식이나 정원에서 그 과정은 'Ideal-concept-spatial schema-realized world'으로 정리된다. 유병림, "이상의 공간적 표상의 문제", 『환경논총』 30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2. p. 144.
- 주 4. 미국에서의 전원도시는 당시 급속도로 과밀화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던 미국 대도시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으로서 건전한 도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스타인과 라이트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적정 밀도의 전원도시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 오픈스페이스 중심의 주거환경을 중산층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내려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Peter Walker and Melanie Simo, *Invisible Gardens : The Search for Modernism in the American Landscape*, The MIT Press, 1994. pp. 30-55.
- 주 5. 1805년 손녀 Ellen에게 쓴 편지에서. Beth L. Cheuked(2002), *Thomas Jefferson's Monticello*, Thomas Jefferson Foundation. p. 124.
- 주 6. 그는 정원은 물론 식물조차도 가족생활 및 사회화의 매개로 활용하였다. 몬티첼로와 아카데미컬 빌리지는 그 같은 그의 의도가 한껏 발휘되었던 곳이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성종상(2010) pp. 58-60.
- 주 7. 특히 정치적인 역경에 처할 때마다 그의 그런 마음은 더욱 짙어져만 갔는데, 자신의 최대 정적이었던 해밀턴의 처제인 Angelica Schuyler Church(1756~1815)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나 있다. "나는 버지니아에 갈 것이요, 내년에는 꼭 돌아갈 것을 결정할 참이요, 추잡한 정치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가족, 농장, 그리고 책에 둘러싸여 지내고 싶어요. 내게는 지어야 할 짐이 있고 경각해야 할 발이 있소.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야만 하요." 그렇지만 정작 그가 몬티첼로로 돌아온 것은 두 번에 걸친 대통령직을 완수하고 친구인 제임스 매디슨에게 물려주고 난 후인, 그의 나이 66세의 일이었다.
- 주 8. 제퍼슨은 자연을 '신에 의한 창조물'로 간주한 기독교적 시각을 전지하면서 국가적 정체성의 의미소라는 정치철학적 관점, 그리고 이성을 통한 관찰 및 탐구의 대상이라는 과학적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성종상(2010), "토머스 제퍼슨의 자연관과 조경관", 『환경논총』 제49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pp. 43-62; 신문수(2010), "자연의 나라-국가 건설과 자연의 재발견", 『미국의 자연관 변천과 생태의식』,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주 9. 그의 나이 25세 때에 처음 터를 다듬기 시작한 이래 사실상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은 시점이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의 일이었으니 몬티첼로를 증개축하는 일은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가 몬티첼로를 건축의 수필이라고 칭한 연유도 자신이 구상한 수많은 아이디어와 건축적 기법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주 10. 몬티첼로에 있었던 그의 농장은 몬티첼로 산 남측 아래로 Tufon지역과 자신의 생가가 있었던 동측의 Shadwell지역, 그리고 북측으로 Rivanna강 넘어 Lego 지역까지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장인으로부터 물려 받은 노예만 135명이 될 정도였던 그는 1782년 경에는 앨버말 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예를 거느린 농장주이기도 했다.
- 주 11. 이를 몬티첼로 인근의 제퍼슨 국제연구소 Robert Smith International Center for Jefferson Studies에서 오랜 기간 제퍼슨 관련 연구를 하면서 몬티첼로의 건물 및 경관 복원 부문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William L. Beiswanger는 "동측 방향으로 산을 만나기 위해서는 눈앞의 지평선을 넘어서 대서양 건너 포르투갈까지 가야 한다."고 말한다. William L. Beiswanger와의 인터뷰. 2009년 5월 20일, Monticello.
- 주 12. 이 같은 건물 타일에 대한 그의 생각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나 다른 글에 잘 드러나 있다. Letter from Thomas Jefferson, Washington, D.C., to Littleton Waller Tazewell, January 5, 1805, Special Collections Department, University of Virginia Library, Charlottesville, VA.; Andrew Lipscomb and Albert Bergh, editors, 2007. *The Writings of Thomas Jefferson*, 20 Volumes, (Washington, D.C.: 1903-1904), 12: 388.

- 주 13. 1810년 5월 6일, Hugh L. White에게 쓴 편지에서, Andrew Lipscomb and Albert Bergh, editors, *The Writings of Thomas Jefferson*, 20 Volumes, (Washington, D.C.: 1903-1904), 12: 388.
- 주 14. 제퍼슨이 갖고 있는 공간 설계의 원칙은 여러 동의 작은 건물을 일련의 질서 안에 통합시켜 건물군으로 배치하거나, 테라스나 현관, 그리고 회랑 등 옥외 거실형의 공간을 건물에 통합시킴으로써 건물과 경관에 긴밀하게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설계한 대표적인 작품인 버지니아 대학의 아카데미컬 빌리지 *academical village*와 자신의 집인 몬티첼로 Monticello, 그리고 그의 은거지 포플라 포레스트 Poplar Forest 등은 이 원칙이 잘 적용된 사례에 속한다. Brown, Allan, *Through the Mind's Eye-Conceptualizing Historic Landscape*, 'Breaking the Grounds' Proceedings of the 11th Conference of Restoring Southern Gardens and Landscapes, Oct., 2-4, 1992, North Carolina, p. 143.
- 주 15. 제퍼슨이 미학 쪽으로 즐겨 읽은 책은 Hogarth, William(1753), *Analysis of Beauty*; Kames, Lord(1762), *Elements of Criticism*; Burke, Edmund(1756), *Essay on the Sublime and the Beautiful* 등이었다. Nichols *et al.*, (2003) p. 76.
- 주 16. 제퍼슨이 자연을 바라본 시각은 '신에 의한 창조'라는 기독교적 시각과, 국가적 정체성의 의미소 내지는 전거라는 정치철학적 시각, 그리고 탐구의 대상이라는 과학적 시각으로 구분해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성종상(2010), pp. 50-53.
- 주 17. 버지니아 대학에 총장이 도입된 것은 이후 한참이 지난 1905년의 일이다. (신문수, 2010)
- 주 18. 잔디밭은 원래 지형을 따라 캠퍼스 외부까지 시선이 열려 있었으나, 대학교묘가 팽창되면서 1950년에 남측 끝에 New Cabell Hall을 신축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조망이 닫히게 되었다.
- 주 19. 70세이던 1811년,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준 화가이자 친구인 Charles Willson Pearl에게 쓴 편지에는 그 같은 그의 생각이 숨김없이 잘 드러나 있다.
"만약 하늘이 내게 직업과 지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셨다면, 나는 정원 산물을 내다 팔 시장 값과 물 좋은 풍요로운 땅위로 정했을 것이요, 땅의 경작만큼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없으며, 문화로서 정원과 건축만큼 것도 달리 없소... 나는 여전히 정원에 헌신하고자 하오, 비록 **늙었지만 정원사로서는 나는 여전히 젊은이일 뿐이라오.**" (강조는 연구자)
- 주 20. 철학, 문학 등 영역에서 앞 선 이들의 명문들을 그가 발췌하여 만든 <문예노트 The Literary Bible>에는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노래한 그리스 시인 베르길리우스(Publius Vergilius Marm. BC 70~BC 19)나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Quintus Horatius Flaccus, BC 65~BC 8) 작품이 다수 들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할 만하다.
- 주 21. 이를 제퍼슨은 '자연의 분주한 작업소 busy workhouse of nature'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이므로 자연 경관을 조망하기도 유리하면서 비, 바람, 안개, 구름 등의 자연현상과 직접적으로 조우하기 쉬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 곳은 "아침이 특히 아름다운데 태양은 장엄함으로 가득한 채 솟아오르고, 새들은 주변에서 달콤하게 노래하며, 공기도 순수하면서 훈훈하다." 그러니 누구든지 집 주변을 거닐다보면 주위에 무한히 펼쳐진 "신성한 경치를 오래 숙고하며 응시하기 위해 잠깐씩 멈춰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Thomas Jefferson to Maria Cosway, 12 October 1786.
- 주 22. Peter Hatch와의 인터뷰, 2009년 5월, 몬티첼로.
- 주 23. 이 보다 훨씬 이전인 1976년 미국 건축학회에서는 미국 독립 이후 200년간 가장 위대한 건축적 성과물로 지명하였고, 1987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었다. 이 외에 건축가로서 제퍼슨의 면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Brawne, Michael(1994) *University of Virginia the Lawn: Thomas Jefferson (Architecture in Detail)*, London: Phaidon Press; Frary, I.T.(1950) *Thomas Jefferson, architect and builder, Garrett and Massie: Richmond*; McLaughlin, Jack(1998) *Jefferson and Monticello, the Biography of a Builder*,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주 24. 그러나 이러한 그의 의도는 이후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낳았다. 학생들과 너무 자주 부딪치는 것을 꺼린 부인들의 불편 호소로 인해 이후 거의 모든 교수들이 강의실을 로툰다나 다른 건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건물군과 그 주위의 녹지로 구성된 대학촌으로 구성된 아카데미컬 빌리지의 개념은 미국 대학에 완벽하게 들어맞은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Turner, Paul V.(1984), *Campus*, MIT Press, p. 87.
- 주 25. 아카데미컬 빌리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캠퍼스로는 Duke University(1892), Johns Hopkins University(1902), University of Delaware(1916), Yale University(1932)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칭화대학과 오하이오의 Walnut Hills 고교도 유사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성종상(2010), p. 46: http://www.uvamblogs.com/jeffersons_academical_village/?cat=12
- 주 26. Palladio의 이상적 모델로서 코린트식은 Pavilion III에, 이오니아식은 Pavilion V에, 그리고 도리아식은 Pavilion VII에 표현되어 있다. 이에 대한 그의 디자인 의도는 다음과 같은 글에 잘 드러나 있다. "... What we wish is that these pavilions, as they will show themselves above the dormitories, shall be models of taste and good architecture, and of a variety of appearance, no two alike, so as to serve as specimens for the architectural lecturer..." -Thomas Jefferson, Letter to William Thornton, 1817.

인용문헌

- 성종상(2010) 토마스 제퍼슨의 자연관과 조경관. 환경논총 제49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pp. 43-62.
- 성종상(2011) 초록지붕의 꿈: 옥상정원의 시학, 옥상정원의 재발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옥상정원개원 기념 심포지움집, pp. 15-27.
- 신문수(2010) 자연의 나라: 국가 건설과 자연의 재발견. ("미국의 자연관 변천과 생태의식"),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유병림(1992) 이상의 공간적 표상의 문제. 환경논총 30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pp. 143-151.
- 이병규 편역(2005) 토마스 제퍼슨의 이해. 서울: 세종.
- 임용순 지음(1995) 역사를 바꾼 통치자들: 미국편. 서울: 미래사.
- Adams, W. H.(1983). *Jefferson's Monticello*, New York: Abbeville Press.
- Beiswanger, W. L., P. J. Hatch, L. Stanton and S. R. Stein(2002) *Thomas Jefferson's Monticello*, Thomas Jefferson Foundation, Inc.
- Brawne, M.(1994) *University of Virginia the Lawn: Thomas Jefferson (Architecture in Detail)*, London: Phaidon Press.
- Brown, A.(1992) *Through the mind's eye-conceptualizing historic landscape. Breaking the Ground Proceedings of the 11th Conference of Restoring Southern Gardens and Landscapes*, Oct., 2-4, North Carolina.
- Cheuked, B. L.(2002) *Thomas Jefferson's Monticello*, Thomas Jefferson Foundation, Inc.
- Cooper, D. E.(2006) *A Philosophy of Garde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cis, M. and R. Hester Jr.(1990) *The Meaning of Gardens*, The MIT Press.
- Frary, I. T.(1950) *Thomas Jefferson, Architect and Builder, Garrett and Massie: Richmond*.
- Harrison, R. P.(2008) *Gardens -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tch, J. P.(1992) *The Gardens of Thomas Jefferson's Monticello*, Thomas Jefferson Foundation, Inc.
- Hayes, K. J.(2008) *The Road to Monticello: The Life and Mind of Thomas Jefferson*, Oxford University Press.
- Herrington, S.(2007) Garden can mean, *Landscape Journal* 26: 2-7.
- Hunt, J. D.(1998) "Gardens: Historical overview", in M. Kelly ed.,

- Encyclopedia of Aesthetics, i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 Gillette, J.(2005) Can gardens mean?. Landscape Journal 24: 1-5.
 21. Library of Congress, Letter from Thomas Jefferson, Monticello, to Nathaniel Bowditch, October 26, 1818, Papers of Thomas Jefferson,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22. Lipscomb, A. and A. Bergh Editors(2007) The Writings of Thomas Jefferson, 20 Volumes, (Washington, D.C.: 1903-1904), 12: 388.
 23. Loth, C.(2008) Palladio's Influence in Americ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24. McLaughlin, J.(1998) Jefferson and Monticello, the Biography of a Builder,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5. Michel, W. J. T. 제국의 풍경. ("문화연구") 이기우 옮김. 서울: 한국문화사, 2000.
 26. Miller, C. A.(1988) Jefferson and Nature: An Interpret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7. Moore, C. W.(1988) Mitchell, William, and Turnbull, William, The Poetics of Gardens, The MIT Press.
 28. Nichols, F. D. and R. E. Griswold(2003) Thomas Jefferson Landscape Architect,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29. Phaidon, M. B.(1994) University of Virginia, the Lawn: Thomas Jeffers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30. Stein, S. R.(1993) The Worlds of Thomas Jefferson at Monticello, New York: H.N. Abrams.
 31. Tuan, Yi-Fu(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Prentice-Hall Inc.
 32. Turner, P. V.(1984) Campus: An American Planning Tradi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33. University of Virginia, Letter from Thomas Jefferson, Washington, D.C., to Littleton Waller Tazewell, January 5, 1805, Special Collections Department, University of Virginia Library.
 34. Waddell, G.(1987) The first monticello,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46(1): 5-29.
 35. Walker, P. and M. Simo(1994) Invisible Gardens: The Search for Modernism in the American Landscape, The MIT Press.
 36. Thomas Jefferson Literary Classics of the US: Distributed to the trade in the US and Canada by the Viking Press(1984).
 37. Wamke, M.(1992) Politische Landschaft, 노성두 옮김. 정치적 풍경. 서울: 일빛, 1997.
 38. http://www.uvamblogs.com/jeffersons_academical_village/?cat=12

원 고 접 수 일: 2012년 2월 13일
 심사 일: 2012년 2월 15일(1차)
 2012년 2월 21일(2차)
 게재확정일: 2012년 2월 21일
 3인익명 심사필